

大邱市 一部 男子高等學生의 藥物濫用 實態와 關聯要因

남중락¹ · 감신¹ · 박재용¹ · 한창현¹ · 하영애²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¹,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²

= Abstract =

Drug Abuse Status and Its Determinants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in Taegu

Jung Rak Nam¹, Sin Kam¹, Jae Yong Park¹, Chang Hyun Han¹, Young Ae Ha²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¹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²*

To identify the drug abuse status and its determinant factors in high school boys in Taegu, the study was performed from April to May, 1995. Study population were selected by cluster sampling method and total 5,665 students replied to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2,207 in academic high school, 3,458 in business high school).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proportion of drinking, smoking experience was 55.0%, 45.8%, respectively, and the proportion of current drinker, current smoker was 27.2%, 27.5%. The drinking, smoking experience rate of second grade students was higher than first grade and it was higher in business high school boys.

The proportion of a stimulant, a hallucinogen, hemp leaf cigarets experience was 3.2%, 1.6%, 0.1%, respectively.

Drug abuse had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home environment(lower economic status, frequent move, death of father or mother, apart from family), parents environment(parents' indifference, parents' drinking and smoking, etc.), school life(lower school grades, intimate friend's drug abuse, etc.), generous attitude to drug abuse, higher level of stress. Students who replied that the law prohibited immature person(students) from drinking and smoking showed lower drug abuse rate.

In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econd grade students, business high school students, parents' indifference, lower school grades, intimate friend's drug abuse, no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the law prohibits high school students from drinking and smoking, generous attitude to drug abuse, higher level of stress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alcohol abuse and smoking. Other drugs abuse were related with above factors.

On consideration of above findings, to prevent students from drug abuse, we have to try together in house, school, and society.

Key words: drug abuse status, its determinants, male high school students

I. 서 론

약물남용은 전인구층에서 볼 수 있지만 특히 정서적으로 변화와 갈등이 심한 청소년기가 약물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취약성이 큰 시기이며 약물사용이 청소년 비행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이길홍 등, 1985; 체육청소년부, 1991).

Connell(1979)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기본변화가 심하고 우울반응이 많고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시기이며 독립성을 찾고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투쟁하는 동시에 외로움과 괴로움을 많이 느끼는 시기이므로 약물의존에 취약성을 갖는 시기라고 하였다.

어린 시기에 약물을 남용할 경우 성장 후 폐인이 되기 쉽고,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일차적으로 약물자체의 해독으로 인한 신경 및 신체조직의 손상이 올 수 있고, 2차적으로 신체발육 지연 및 신체기능 부조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의학적 후유증이 심각하다. 또한 약물 남용시 무단결석, 성적저하, 공격적 행동을 나타냄으로써 비행과 범죄의 계기가 되며 약물중독 상태에서는 환각, 망상 등이 나타나 예측불허의 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약물에 탐닉할 경우 사회적으로는 필요한 생산적 노동력을 잃을 뿐 아니라 이들의 치료 재활을 위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문화체육부, 1993; 대구라인, 1995; 보건신문, 1995; 영남일보, 1995; 조선일보, 1995), 약물

남용의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히 예방하고 약물로 인한 우발적인 범죄의 빈도를 줄이기 위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체육청소년부, 1991).

약물남용 문제가 매우 심각한 미국에서는 각종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없이 몇몇 관심있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있을 뿐이며, 연구의 대표성과 정확도에 문제가 없지 않다(주왕기 등, 1991; 체육청소년부, 1991).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물남용 실태를 조사한 보고는 많은 편으로 1990년 이후에도 비교적 많이 보고(김소야자, 1991; 주왕기 등, 1991; 김성이, 1992; 이경영, 1993; 이윤지 등, 1993; 배종면 등, 1994)되고 있으며, 문화체육부에서도 매년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논문들은 주로 실태 분석에 그치고 있고, 장상희(1992)가 부산시 남녀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약물남용에 대한 긴장이론, 사회통제이론 및 사회화이론을 통합한 이론적 모델에 기초하여 청소년의 약물남용행위를 경로분석한 사회 심리적 연구가 있으며, 문화체육부(1993) 주관으로 한국청소년학회가 약물남용에 대한 경로분석을 시도한 바 있으나 이들 연구들은 사회 심리적 이론에 기초하거나 대상이 남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근로청소년, 무직 청소년, 복무(비행)청소년으로 균일하지 않으며, 청소년기의 흡연과 음주 등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스트레스 등(서일, 1988; 김소야자 등, 1989; 병원신보, 1993; 조우성 등, 1993)의 변수는

빠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균일한 집단으로 생각되는 대구시 일부 고등학생(인문계와 실업계)의 약물남용실태를 조사하고, 약물남용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약물남용문제의 대처방안과 예방대책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II. 대상 및 방법

1. 약물과 약물남용의 조작적 정의

약이란 단어는 여러 의미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의약품으로서의 약 외에도, 화학약품, 공업약품, 농약, 시약, 화약, 유약, 구두약 등 아주 다양한 물질이 약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의약품으로서의 약을 약물로 인정하는데, 약물에는 의약품으로서의 약물 및 민간 약으로서의 약물이 존재한다. 청소년 약물 남용분야에서는 “약, 약물, 물질” 등의 단어가 서로 혼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약물로 사용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약물남용에서 문제시되는 것들은 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 등인데, 이들은 전통적 의미의 의약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지만, 현대의 중독학에는 모두 해당되는 물질들이다(문화체육부, 1993).

현대의 중독학에서 이야기하는 습관성 및 중독성 약물은 중추신경흥분제, 중추신경억제제, 환각제 등 크게 3가지의 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

1) 중추신경흥분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흥분을 시키는 물질로서 종류는 다음과 같다. 카페인(커피), 니코틴(담배), 크산틴(초콜릿), 코카인, 암페타민 등이 있다.

2) 중추신경억제제

중추신경계를 억압하는 물질로서 이에 속하는 물질로는 아편계열, 알코올,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본드나

가스 등 흡입제 등이 있다.

3) 환각제

중추신경계에 흥분제로 작용하기도 하고 억제제로 작용하기도 하는 물질로서 이것에는 대마초, LSD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의 약물은 전통적 의미의 의약품과 현대의 중독학에 해당하는 물질을 통칭하여 약물이라 사용하였는데, 이 중 술, 담배, 각성제(타이밍 등), 환각제(본드, 시너, 부탄가스 등), 대마초와 마리화나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약물남용의 정의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약물의 비의학적 사용으로서, 약물을 지속적으로 또는 산발적으로 사용하여 사회 및 직업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문화체육부, 1993)로 간단히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으로 한 약물의 사용이 비의학적 사용 내지는 고등학생의 신분으로서 일탈된 행위이므로,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거나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약물남용으로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도구

대구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2학교와 주·야간부 모두가 있는 고등학교 2학교를 임의추출하여 1, 2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1995년 4-5월에 실시된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는 6,094명으로 인문계 2,297명, 실업계 3,797명이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것을 제외한 5,665부(인문계 2,207명, 실업계주간 2,480명, 실업계 야간 978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일차 작성하여 30인 정도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설문지를 완성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들은 약물남용 실태와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물

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는 가정환경, 부모환경, 학교생활, 약물사용 금지 및 처벌에 대한 지식, 약물에 대한 수용태도, 스트레스 수준 등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었는데, 스트레스 수준은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Frank와 Zyzanski (1988)의 5문항으로 구성된 간이 스트레스 측정도구(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BEPSI)를 번역한 배종면 등(1994)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BEPSI는 스트레스 수준을 간단하게 측정해 볼 수 있도록 개발된 측정도구로써 생활변화에 대한 개인의 내적 반응 정도를 측정한다. 1개의 개방형 질문과 5개의 폐쇄형 질문-외부적 요구(Extrinsic Demand), 내부적 요구(Intrinsic Demand), 충족만족도 (Attributional Demand), 충족의 불확실성(Demand Uncertainty), 미래의 충족기대도(Demand Perspectiv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5개의 폐쇄형 문항은 응답자가 한달 동안 생활하며 느꼈던 정도를 1~10점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그 합을 응답한 항목수로 나누어 스트레스 수준을 정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느끼는 정도를 리커트 척도법(Likert scale)에 따른 5수준을 제시하여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합산한 뒤 응답한 항목수로 나누어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였다.

3. 연구의 틀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초기에는 약물남용이 아동기의 미해결된 상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파생된 미숙한 행동이라고 보는 Freud 등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이 우세하였으나 점차 가정, 학교, 사회환경 등에 대한 원인규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장상희, 1992; 문화체육부, 1993).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원인에 관한 이론은 의리적 모델, 병리적 모델, 사회학적 모델, 행동주의적 모델, 그리고 사회 심리적 모델 등이 있다(문화체육부, 1993). 최근 장상희(1992)는 정신분석학적 이론, 압력이론, 사회통제이론 및 사회화이론을 바탕으로 통합적 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며, 문화체육부(1993)도 이들 이론을 통합하여 경로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장상희, 1992; 문화체육부, 1993)에서 제시한 통합적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스트레스가 음주와 흡연 등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서일 등, 1988; 김소야자 등, 1989; 조우성 등, 1993; 배종면 등, 1994)하고 있어 스트레스 수준도 요인에 포함하였다. 또한 행위의 결과로 기대되는 처벌이 통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어 약물사용 금지 및 처벌에 대한 지식도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요인에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 포함된 요인은 가정환경(주거지역, 생활수준, 이사횟수, 부모생존여부, 가족동거여부), 부모환경(부모의 관심도, 교육정도, 직업, 음주태도, 흡연태도, 약물태도), 학교생활(학업성적, 학습시간, 어울리는 친구수,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 약물사용 친구, 학교내외의 처벌받은 친구), 약물수용태도, 약물사용금지 및 처벌에 대한 지식, 스트레스 수준 요인으로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4. 연구방법

설문서의 신뢰성 평가는 응답자의 느끼는 정도를 5수준으로 제시하여 이를 선택하도록 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는데 이용한 도구인 BEPSI에 대한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구하여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알파계수가 0.77로 비교적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여(각 항목제거에 따른 알파계수 변동은 0.71~0.75, 전체함에 대한 상관성은 0.65~0.75)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약물경험 유무를 가정환경, 부모환경, 학교생활, 약물사용 금지 및 처벌에 대한 지식, 약물에 대한 수용태도, 스트레스 정도별로 빈도분석을 하여 비교하였으며, 통계적 검정은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다. 이때 약물경험은 지금까지 전혀 없는 경우를 무로 하였으며, 경험이 있는 경우를 유로 하였는데 유는 다시 과거에 경험이 있고 지금은 하지 않는 경우를 과거로, 지금도 하고 있는 경우를 현재로 하여 단순분석을 하였다. 대마초 경험률은 0.1%로 너무 낮아 과거 및 현재경험률 분석시 과거와 현재로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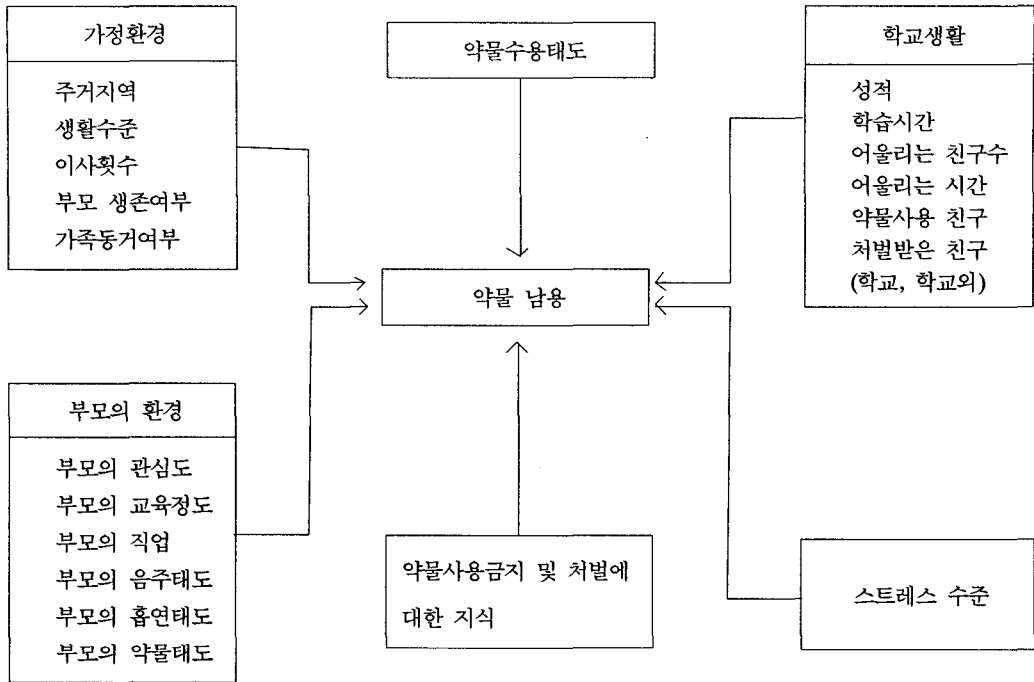


그림 1. 이 연구에서의 모형

험률로 제시하였다.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약물경험 유무(단순분석에서의 과거와 현재를 합하여 유로 하였음)를 종속변수로 하고 가정환경, 부모환경, 학교생활, 약물사용 금지 및 처벌에 대한 지식정도, 약물에 대한 수용태도, 스트레스 수준의 각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의 선정시 가정환경, 부모환경, 학교생활, 약물사용금지 및 처벌에 대한 지식, 약물에 대한 수용태도의 문항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에는 각 변수들 중에서 중요하면서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문항들을 선정하여 독립변수로 이용하였다. 또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시, 학년과 인문·실업(주·야간)의 계열을 가변수로 하여 전체 대상자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학년별로, 인문계와 실업계 주·야간별로 특성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어

학년과 인문계, 실업계 주 야간별로 나누어 동일집단별로 분석도 시도하였다. 대마초 경험은 경험률이 너무 낮아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III. 성 적

대상 남자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의 음주경험률은 55.0%, 흡연의 경험률은 45.8%였으나, 현재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다는 자는 각각 27.2% 및 27.5%였다. 1학년에 비해 2학년의 음주 및 흡연 경험률이 높았으며, 인문계에 비해 실업계의 경험률이 높았으며 실업계에서는 야간부보다 주간부의 경험률이 높았다($p < 0.01$) (표 1).

대상자의 각성제 경험률은 3.2%, 환각제의 경험률은 1.6%이었고, 대마초의 경험률은 0.1%였다. 각성제는 1학년에 비해 2학년에서 경험이 많았으며, 음주와 흡연

표 1. 대구시 일부 남자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의 음주 및 흡연 경험도

(단위 : %)

	대상자 수 (명)	음 주				흡 연			
		무	유		무	유			
			과거	현재		과거	현재		
1 학년		$\chi^2 = 67.49$	df=4	P=0.000	$\chi^2 = 67.49$	df=4	P=0.000		
인문계	1,165	58.9	29.1	12.0	74.1	17.0	8.9		
실업계(주간)	1,487	50.4	26.2	23.4	51.6	21.6	26.8		
실업계(야간)	439	61.5	20.5	18.0	59.5	16.9	23.7		
2 학년		$\chi^2 = 227.83$	df=4	P=0.000	$\chi^2 = 338.09$	df=4	P=0.000		
인문계	1,042	42.4	36.9	20.6	64.5	19.0	16.5		
실업계(주간)	993	23.7	25.5	50.9	31.7	16.3	52.0		
실업계(야간)	539	31.2	22.1	46.8	35.6	15.2	48.2		
		$\chi^2 = 678.26$	df=12	P=0.000	$\chi^2 = 754.09$	df=12	P=0.000		
계	5,665	45.0	27.8	27.2	54.2	18.3	27.5		

표 2. 대구시 일부 남자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의 약물남용 경험도

(단위 : %)

	각성제			환각제			대마초		
	무	유		무	유		무	유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1 학년	$\chi^2 = 10.58$	P = 0.032		$\chi^2 = 6.17$	P = 0.187		$\chi^2 = 2.49$	P = 0.288	
인문계	96.7	2.3	1.0	98.8	0.6	0.6	99.7	-	0.3
실업계(주간)	98.5	1.1	0.5	98.4	1.0	0.6	99.9	-	0.1
실업계(야간)	98.4	1.3	0.7	97.6	1.7	0.7	100.0	-	-
2 학년	$\chi^2 = 10.92$	P = 0.028		$\chi^2 = 0.028$	P = 0.063		$\chi^2 = 3.19$	P = 0.203	
인문계	94.5	3.7	1.7	99.1	0.8	0.1	100.0	-	-
실업계(주간)	95.5	2.7	1.8	97.7	1.6	0.7	99.8	0.2	-
실업계(야간)	98.0	1.3	0.7	97.6	1.7	0.7	100.0	-	-
	$\chi^2 = 43.47$	P = 0.000		$\chi^2 = 16.64$	P = 0.083		$\chi^2 = 17.30$	P = 0.068	
계	96.8	2.1	1.1	98.4	1.1	0.5	99.9	0.0	0.1

경험률과는 다르게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경험률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오히려 높았다(p<0.01) (표 2).

가정환경에 따른 과거 및 현재 약물경험률은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이사횟수가 많을수록, 음주, 흡

연, 환각제의 경험률이 높았다(p<0.01).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가 음주와 흡연, 환각제의 경험률이 낮았으며,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흡연과 대마초의 경험률이 높았다(p<0.01) (표 3).

표 3. 가정환경에 따른 과거 및 현재 약물경험률

(단위 : %)

	대상자수	음주		흡연		각성제		환각제		대마초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주거지역										
주택	4,864	27.7	26.8	18.2	26.9	2.3	1.1	1.0	0.5	0.1
상가	621	28.4	29.2	18.4	32.4	1.1	0.6	1.5	0.6	-
공장	180	28.3	29.4	19.4	27.2	2.2	1.1	2.2	1.1	0.6
생활수준										
잘산다	471	29.7	24.1**	15.4	23.9**	3.4	1.9	1.3	0.2**	-
보통이다	4,277	27.4	26.6	18.1	27.2	2.1	0.8	0.9	0.3	0.1
못산다	917	28.8	31.2	20.8	30.9	1.9	2.0	1.9	1.4	0.2
이사횟수										
~2	2,121	26.7	25.8**	16.9	25.7**	1.8	0.9	0.8	0.2**	0.1
3~4	2,039	27.6	26.9	18.5	27.2	2.4	1.2	1.2	0.4	0.1
4~	1,505	29.8	29.3	29.0	29.4	2.3	1.2	1.4	1.0	0.1
부모생존여부										
모두 생존	5,065	28.2	26.3**	18.3	26.7**	2.2	1.0	1.0	0.4**	0.1
기타 ¹⁾	600	24.7	34.2	18.5	34.3	2.0	2.0	2.2	1.2	0.3
가족과 동거여부										
예	5,365	27.8	27.0	18.2	27.1**	2.1	1.0	1.1	0.4	0.1**
아니오	300	28.0	30.7	20.0	34.3	2.0	1.7	0.7	1.7	1.0
계	5,665	27.8	27.2	18.3	27.5	2.1	1.1	1.1	0.5	0.1

** : $p < 0.01$

1) 기타 : 부모가 이혼, 부모 중 어느 한분만 생존, 양친 모두 안 계신 경우

부모의 관심도가 낮을수록 음주와 흡연의 경험률이 높았으며, 부모의 관심이 없는 경우가 각성제와 환각제의 경험률이 높았다($p < 0.01$). 부와 모의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흡연의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고, 부의 직업이 생산직이거나 무직 등일 경우 흡연의 경험률이 높았으며, 모의 직업이 생산직인 경우가 흡연 경험률이 높았다($p < 0.01$). 부나 모의 음주 태도가 자녀의 음주와 흡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부가 음주를 많이 할수록 또는 모가 음주를 하는 경우, 흡연, 환각제의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부가 흡연을 많이 할수록 음주, 흡연, 환각제의 경험률이 높았으며, 각성제의 현재 경험률이 높았다. 모가 흡연을 하는 경우는 음주, 흡연, 환각제에서 유의하게 약물의 경험률이 높

았다($p < 0.01$). 부나 모가 약물복용을 지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음주와 흡연 등의 경험률이 높았는데, 부가 약물을 지시대로 복용하지 않는 경우 흡연의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표 4).

약물경험률은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높았는데, 음주, 흡연은 현재도 경험하는 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환각제의 경우는 과거경험률은 성적이 낮을수록 높아졌으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율은 성적이 낮은 경우와 오히려 성적이 높은 경우가 경험률이 높았다($p < 0.01$). 학습시간이 짧을수록 음주와 흡연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환각제의 경우는 학습시간이 짧은 경우와 오히려 긴 경우가 경험이 높았다($p < 0.01$). 방과후 어울리는 친구가 많거나 어울리는 시간이 길수록 현재도 약물을 사용하는 경험

표 4. 부모환경과 과거 및 현재 약물경험률

(단위 : %)

	대상자수	음주		흡연		각성제		환각제		대마초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부모의 관심도										
알고 있다	2,793	26.9	23.2**	15.7	24.2**	2.1	0.8**	0.8	0.2**	0.1
반반이다	1,263	27.4	30.0	19.0	30.5	1.9	0.6	1.1	0.6	-
거의 모른다	1,609	29.6	32.1	22.1	31.2	2.4	1.9	1.5	0.9	0.2
부의 교육정도										
중학교 이하	2,306	28.2	27.9**	19.7	29.0**	1.8	1.0	1.2	0.7	0.1
고등학교	2,629	27.1	28.4	17.3	28.5	2.4	1.1	1.1	0.4	0.1
전문대 이상	730	30.5	19.0	17.8	19.1	3.0	1.4	0.5	0.3	0.3
모의 교육정도										
국민학교	1,253	28.5	29.9	20.5	29.9**	2.2	1.1	1.1	0.6	0.2
중학교 이하	2,335	27.0	26.4	18.2	26.8	1.7	1.1	1.0	0.6	-
고등학교 이상	2,077	28.5	26.1	17.3	26.4	2.6	1.0	1.1	0.3	0.1
부의 직업										
전문직	1,014	28.4	26.4	17.4	24.5**	2.8	1.8	1.2	0.9	0.1
사무직	1,065	26.8	23.4	17.0	23.8	1.7	0.9	0.7	-	-
생산직	2,294	28.9	27.9	18.3	29.4	2.2	0.8	1.2	0.5	0.1
기타	1,292	27.8	28.7	20.1	29.5	2.2	1.1	1.2	0.6	0.2
모의 직업										
사무직·전문직	374	26.2	25.1	15.8	25.7**	1.9	1.1	2.1	0.5	0.3
생산직	2,306	28.2	29.1	19.4	30.5	1.9	1.2	1.2	0.7	0.1
무직(가사)	2,985	28.2	25.8	17.9	25.3	2.4	1.0	0.9	0.3	0.1
부의 음주태도										
전혀 하지 않는다	861	29.1	24.8**	17.9	26.9**	3.0	0.9	1.5	0.3	0.1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3,847	27.3	25.8	17.9	26.3	1.9	1.0	1.0	0.3	0.1
걱정할 정도이다	957	29.0	34.7	20.4	33.3	2.4	1.8	1.3	1.1	0.1
모의 음주태도										
전혀 하지 않는다	3,184	27.2	23.7**	18.3	25.1**	2.4	1.1	0.9	0.4	0.1
마신다	2,481	29.0	31.5	18.6	30.6	1.8	1.1	1.4	0.5	0.1
부의 흡연태도										
전혀 하지 않는다	1,456	27.7	24.1**	18.8	22.2**	2.9	0.6**	0.9	0.3**	-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3,320	27.1	27.6	17.8	28.8	2.0	1.1	1.0	0.4	0.1
걱정할 정도이다	889	31.2	30.5	19.4	31.8	1.7	2.0	2.0	1.0	0.3
모의 흡연태도										
안 한다	5,444	28.1	26.6**	18.5	26.9**	2.1	1.0	1.0	0.4**	0.1
한다	221	24.9	39.8	15.7	43.1	3.2	2.7	3.2	2.7	0.9
부의 약물태도										
지시에 따른다	3,082	28.0	25.5	17.4	26.3**	2.2	1.0	1.0	0.3	0.0
지시대로 안 따른다	2,583	27.9	29.1	19.3	29.3	2.2	1.3	1.3	0.7	0.2
모의 약물태도										
지시에 따른다	3,376	27.8	26.0	17.8	26.9	2.1	1.1	0.9	0.4	0.1
지시대로 안 따른다	2,289	28.3	28.9	19.2	28.5	2.3	1.0	1.3	0.6	0.1
계	5,665	27.8	27.2	18.3	27.5	2.1	1.1	1.1	0.5	0.1

** : p<0.01

표 5. 부모환경과 과거 및 현재 약물경험률

(단위: %)

	대상자수	음주		흡연		각성제		환각제		대마초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학교성적										
아주 높다	425	30.0	19.3**	17.6	16.7**	1.9	0.7	0.2	1.0**	-
높다	850	29.3	22.0	18.6	20.4	2.0	1.1	0.8	0.2	-
중간이다	2,351	29.0	25.6	18.3	25.5	2.3	1.0	0.9	0.5	-
낮다	1,620	25.6	32.8	18.4	33.6	1.8	1.4	1.3	0.3	0.1
아주 낮다	419	23.8	39.6	16.3	42.0	2.9	1.0	2.9	1.4	1.0
학습시간										
~1	3,048	26.5	34.2**	19.0	35.8**	2.1	1.2	1.5	0.8**	0.2
1~2	2,068	29.5	19.7	17.1	18.8	2.3	0.9	0.4	0.1	-
2~	549	28.5	16.8	18.5	14.2	1.8	0.9	1.1	0.7	-
방과후 어울리는 친구수										
없다	1,125	28.8	10.8**	18.4	10.3**	2.2	1.0	0.4	0.1**	0.1
1명	713	28.1	13.9	18.5	16.5	1.7	1.0	1.0	0.1	-
2~3명	2,315	28.6	26.1	19.1	25.9	2.1	0.7	0.8	0.3	-
4명 이상	1,512	25.6	47.1	16.8	48.3	2.5	1.8	2.1	1.3	0.3
방과후 어울리는 시간										
~30분	2,623	29.4	17.3**	18.2	17.0**	2.1	0.7**	0.4	0.2**	-
30분~1시간	1,190	29.0	27.4	19.2	28.8	2.4	1.2	1.2	0.4	-
1~2시간	680	26.1	36.6	18.9	39.2	2.1	0.6	1.2	-	-
2시간 이상	1,172	24.1	50.5	17.3	50.5	2.2	2.3	2.7	1.7	0.5
약물사용 친구수										
없다	2,859	24.4	11.3**	16.4	10.4**	1.7	0.2**	0.6	0.1**	-
1명	390	35.0	16.6	23.8	15.5	2.3	1.0	0.5	0.3	-
2~3명	1,013	38.3	30.1	24.4	32.4	2.6	1.4	0.7	0.4	-
4명 이상	1,403	25.5	59.9	16.2	62.0	2.7	2.7	2.6	1.6	0.4
처벌받은 학교친구수										
없다	4,640	28.2	21.9**	18.4	22.3**	1.9	0.8**	0.7	0.2**	-
있다	1,025	26.2	50.6	17.7	50.7	3.1	2.3	3.1	1.7	0.4
처벌받은 학교외 친구수										
없다	4,379	28.0	20.6**	18.4	21.2**	2.0	0.8**	0.6	0.2**	-
있다	1,286	27.2	49.0	17.9	49.0	2.6	2.0	2.8	1.6	0.3
계	5,665	27.8	27.2	18.3	27.5	2.1	1.1	1.1	0.5	0.1

** : p<0.01

률이 높았는데, 음주, 흡연, 환각제 등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약물사용 친구가 많을수록, 처벌받은 학교내외의 친구가 있는 경우 모든 약물의 경험률이 높았는데, 대마

초 외에는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p<0.01)(표 5).

약물사용 금지와 처벌에 대한 지식에 따른 과거 및 현재 약물경험률은 '치료목적외 불법사용시 징역을 산

표 6. 약물사용 처벌에 대한 지식과 과거 및 현재 약물경험률

(단위 : %)

	대상자수	음주		흡연		각성제		환각제		대마초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치료목적외 불법사용시 징역을 산다										
그렇다	4,011	28.8	25.9**	18.5	26.6	2.0	1.1	1.2	0.5	0.1
그렇지 않다	1,654	25.6	29.9	17.8	29.6	2.4	1.0	1.0	0.5	0.1
약물사용 후 자제심상실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는다										
그렇다	4,141	28.6	26.6	18.3	26.3**	2.2	1.2	1.1	0.5	-0.3
그렇지 않다	1,524	25.9	28.5	18.3	30.5	2.0	0.8	1.1	0.5	
미성년자는 깃연, 음주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예	2,821	26.7	23.3**	17.5	24.4**	1.8	1.0	0.8	0.4	-
아니오	2,844	29.1	30.9	19.2	30.5	2.6	1.1	1.4	0.5	0.2
계	5,665	27.8	27.2	18.3	27.5	2.1	1.1	1.1	0.5	0.1

** : p<0.01

표 7. 약물에 대한 수용태도와 과거 및 현재 약물경험률

(단위 : %)

	대상자수	음주		흡연		각성제		환각제		대마초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이성친구에게 먹이고 싶은 충동을 가질 때가 있다										
그렇다	1,405	30.9	38.7**	21.4	37.6**	4.0	2.2**	1.9	1.4**	0.2
그렇지 않다	4,260	26.9	23.3	17.3	24.1	1.5	0.7	0.8	0.2	-
약물의 값이 싸다면,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그렇다	623	29.5	42.4**	20.1	42.5**	4.2	3.9**	3.4	3.1**	0.5
그렇지 않다	5,042	27.5	25.2	18.0	25.5	1.9	0.7	0.8	0.2	-
약물을 사용하다 보면 폐인이 된다										
그렇다	5,376	27.8	27.0	18.3	27.4	2.1	1.1	1.1	0.4**	0.1
그렇지 않다	289	28.4	26.6	18.8	27.0	3.8	1.7	1.7	1.7	0.4
약물을 사용하기 보다는 취미생활이 낫다										
그렇다	4,896	28.1	26.6	18.4	26.6**	2.1	1.0	1.0	0.5	0.1
그렇지 않다	765	25.7	29.9	17.9	32.1	2.6	2.0	2.0	0.5	0.3
계	5,665	27.8	27.2	18.3	27.5	2.1	1.1	1.1	0.5	0.1

* : p<0.05, ** : p<0.01

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현재도 음주를 하는율이 낮았다. '약물사용 후 자제심상실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는다'라고 답한 경우가 흡연경험률이 낮았으며, '미성년자는 깃연, 음주를 법

으로 금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약물사용 경험률이 낮았는데 음주와 흡연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p<0.01) (표 6).

약물에 대한 수용태도 중 '이성친구에게 먹이고 싶은

표 8. 스트레스 수준(BEPI)과 과거 및 현재 약물경험률

(단위 : %)

	대상자수	음주**		흡연**		각성제**		환각제**		대마초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2점 미만	2,099	23.1	22.0	17.0	24.5	1.3	0.6	0.8	0.1	0.1
2~3점	2,700	30.3	27.5	18.8	27.0	2.6	0.9	1.0	0.4	0.1
3점 이상	866	31.9	38.7	19.9	36.5	2.7	3.0	2.3	1.6	0.2
계	5,665	27.8	27.2	18.3	27.5	2.1	1.1	1.1	0.5	0.1

** : p < 0.01

표 9. 약물경험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¹⁾	음주		흡연		각성제		환각제	
	POR ²⁾	(95% C.I. ³⁾)	POR	(95% C.I.)	POR	(95% C.I.)	POR	(95% C.I.)
학년	2.53	(2.24-2.87)**	1.91	(1.69-2.17)**	1.82	(1.34-2.49)**	0.97	(0.63-1.50)
가변수 1	1.76	(1.53-2.03)**	3.34	(2.90-3.85)**	0.65	(0.46-0.90)*	1.91	(1.14-3.22)*
가변수 2	1.47	(1.23-1.75)**	3.21	(2.67-3.84)**	0.46	(0.27-0.78)*	2.76	(1.46-5.24)**
생활수준	1.09	(0.97-1.23)	1.04	(0.93-1.18)	1.27	(0.94-1.71)	0.75	(0.49-1.17)
가족동거여부	1.07	(0.82-1.39)	0.87	(0.67-1.12)	0.93	(0.50-1.76)	0.89	(0.40-1.98)
부모의 관심도	0.90	(0.84-0.96)**	0.86	(0.80-0.92)**	0.91	(0.77-1.08)	0.78	(0.62-1.02)
부의 음주	1.09	(0.98-1.20)	1.09	(0.98-1.20)	0.96	(0.73-1.27)	0.88	(0.63-1.23)
부의 흡연	1.05	(0.96-1.15)	1.10	(1.00-1.20)	1.01	(0.81-1.27)	1.35	(0.94-1.89)
학교성적	0.88	(0.83-0.93)**	0.80	(0.76-0.85)**	0.95	(0.82-1.09)	0.78	(0.62-0.98)*
약물사용 친구	4.05	(3.59-4.57)**	3.96	(3.51-4.47)**	1.99	(1.42-2.80)**	2.47	(1.46-4.21)**
미성년자 킷연, 음주	0.71	(0.63-0.80)**	0.75	(0.67-0.85)**	0.89	(0.66-1.20)	0.63	(0.40-0.99)*
이성친구 충동	1.58	(1.36-1.83)**	1.62	(1.40-1.87)**	2.12	(1.55-2.89)**	2.26	(1.46-3.51)**
스트레스 정도	1.51	(1.37-1.65)**	1.28	(1.17-1.41)**	1.21	(0.96-1.51)	1.84	(1.35-2.51)**
		$\chi^2=1250.642$		$\chi^2=1342.781$		$\chi^2=102.299$		$\chi^2=87.536$
		P=0.0000		P=0.0000		P=0.0000		P=0.0000

* : p < 0.05, ** : p < 0.01

- 1) 학년 : 1학년(1), 2학년(2); 가변수1:인문계(0), 실업계주간부(1); 가변수2:인문계(0), 실업계야간부(1)
 생활수준 : 못산다(1), 보통이다(2), 잘 산다(3)
 가족동거여부 : 동거 안 함(0), 동거함(1)
 부모의 관심도 : 모른다(1), 반반이다(2), 잘 안다(3)
 부의 음주, 흡연 : 안 한다(1),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2), 걱정할 정도다(3)
 학교성적 : 아주 낮다(1), 낮은 편이다(2), 중간이다(3), 높은 편이다(4), 아주 높다(5)
 약물사용 친구 : 없다(0), 있다(1)
 미성년자 킷연 · 음주 금지 : 아니오(0), 예(1)
 이성친구에게 먹이고 싶은 충동느낌 : 아니오(0), 예(1)
 스트레스 정도 : 2점 미만(1), 2~3점(2), 3점 이상(3)

2) POR : Prevalence Odds Ratio

3) C.I. : Confidence Interval

충동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한 경우와 '약물 값이 싸다면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한 경우 약물사용 경험

률이 높았다(p < 0.01). 약물을 사용하다보면 폐인이 된다는 항목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 환각

제의 사용이 유의하게 많았다($p < 0.01$). 약물사용보다 취미생활이 낮다는 물음에 부정적인 답을 한 경우가 흡연의 경험률이 높았다($p < 0.01$) (표 7).

스트레스 수준(BEPSI)과 과거 및 현재 약물경험률의 관계에서는,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할수록 약물사용 경험률이 높았는데, 대마초를 제외하고는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표 8).

약물경험유무를 종속변수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음주 경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2학년인 경우, 인문계보다는 실업계 주·야간부인 경우, 부모의 관심도가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약물사용 친구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익연·음주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이성친구에게 약물을 먹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경우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가 음주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경험에는 음주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각성제 경험에는 2학년인 경우, 실업계 주·야간부보다는 인문계인 경우, 약물사용 친구가 있는 경우, 이성친구에게 약물을 먹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환각제 경험에는 인문계보다는 실업계 주·야간부인 경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약물사용 친구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익연·음주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이성친구에게 약물을 먹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경우,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p < 0.05$) (표 9).

인문계 1학년, 인문계 2학년, 실업계 주·야간부 1, 2학년 학생들의 약물경험 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부표 1에서 부표 6에 제시하였다.

IV. 고찰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볼 때 심각한 마약류의 사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약물남용의 정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문화체육부, 1993; 조선일보, 1995; 보건의신문, 1995), 대구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가 자주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영남일보, 1995; 대구라인, 1995).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개인적, 사회적 폐해를 야기시키므로(김소야자, 1991; 장상희, 1992) 청소년 약물남용의 예방을 위하여 그 원인을 규명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른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개선책이 정책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

대구시 일부 남자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의 음주경험률은 55.0%이지만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의 음주경험률이 41.1%로 가장 낮았으며, 가장 높은 군은 실업계 2학년 주간부 학생(76.7%)이었다. 현재 음주율은 27.2%로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의 12.0%에서 실업계 2학년 주간부의 50.9% 사이였다. 흡연의 경험률은 45.8%였으며, 인문계 1학년의 흡연경험률이 25.9%로 가장 낮았고, 실업계 주간부 2학년이 64.4%로 가장 높았다. 현재 흡연을 하고 있다는 학생도 27.5%나 되었다. 1학년에 비해 2학년의 음주 및 흡연 경험률이 높았으며, 인문계에 비해 실업계의 경험률이 높았다. 이 결과는 인문계 고교는 주로 대학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비교적 가정환경이 나은 학생들이, 그리고 실업계 고교는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광주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윤지와 이정애, 1993)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흡연경험률이 26.8%, 인문계 2학년이 30.6%, 실업계 1학년이 44.7%, 실업계 2학년이 57.7%로 비슷한 편이었다.

대상자의 각성제 경험률은 3.2%, 환각제의 경험률은 1.6%이었고, 대마초의 경험률은 0.1%였다. 각성제는 1학년에 비해 2학년의 경험이 많았으며, 음주와 흡연 경험률과는 다르게 실업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에 비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경험률이 오히려 높았다. 이는 인문계 고교의 경우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에 대한 연구(이길홍 등, 1985; 김성이, 1989; 조연숙, 1989; 주왕기 등, 1990; 김경빈, 1991; 김소야자, 1991; 체육청소년부, 1991; 문화체육부, 1993; 이경영, 1993)는 여러 편이 있

으나 이 연구와는 대상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의 약물 남용율은 비교 가능한 기존의 보고(체육부, 1989; 장상희, 1992)에 비해 대체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보고조사에서 청소년들은 그들의 비행을 거짓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며(Braithwaite, 1981), 또한 약물을 남용하는 학생들이 조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약물남용행위를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가지고 집합조사할 경우에는 실제율보다 낮게 집계될 확률이 높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한국의 상황에서는 조사시 조건이 거의 비슷하므로 대상자의 차이, 조사방법의 차이, 실제로 낮은 것 등이 이유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환경과 약물경험률에서는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이사횟수가 많을수록 음주, 흡연, 환각제 등의 약물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체육부(1993)의 조사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안정적이지 못한 생활환경이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Cloward와 Ohlin(1964)도 청소년의 비행은 문화적 구조적 장벽 때문에 청소년들이 합법적 기회를 통해 그들의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때에 일어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장벽은 일반적으로 상류층보다는 하류층 청소년들이 더 경험하게 되므로 이들의 일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지 않는 경우, 즉 결손가정인 경우와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학생에서 약물의 경험률이 높아 가정 형태도 약물사용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은 청소년들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이 기능의 결손으로 약물남용의 기회가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모님과 헤어졌을 때, 가족끼리의 결속감이 느슨할 때 후일에 알콜 중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문화체육부, 1993). 심리학적 관점인 인성이론(personality theories)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은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의존욕구(dependency needs)가 독립심을 기대하는 사회적 욕구와 충돌하여 일으킨 심리적 갈등의 표출이라는 것이다(장상희, 1992).

부모환경과 약물경험률과의 관계에서는, 부모의 관심도가 낮을수록 음주, 흡연, 그리고 환각제의 경험률이 높았으며, 부모의 관심이 없는 경우가 각성제의 경험률이 높았다. 부와 모의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흡연의 경험률이 높았고, 부의 직업이 생산직이거나 무직 등일 경우 음주와 흡연의 경험률이 높았으며, 모의 직업이 생산직인 경우가 흡연경험률이 높았다. 부나 모의 음주 태도가 자녀의 음주와 흡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부가 음주를 많이 할수록 또는 모가 음주를 하는 경우, 음주와 흡연의 경험률이 높았다. 부가 흡연을 많이 할수록 음주, 흡연, 환각제의 경험률이 높았으며, 모가 흡연을 하는 경우는 음주, 흡연, 각성제, 환각제, 대마초의 모두에서 약물의 경험률이 높았다. 부나 모가 약물복용을 지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음주와 흡연 등의 경험률이 높았는데, 부가 약물을 지시대로 복용하지 않는 경우 흡연의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문화체육부, 1993)와 부합되는 내용이었으며, 가족의 역기능과 청소년 약물남용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Stanton, 1980)와도 일치되는 결과였다. 부모들은 청소년 약물남용의 모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부모들의 자녀양육 태도가 적절하지 않을 때, 아버지가 무심할 때 후일에 알콜 중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여 부모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는데, 아버지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문화체육부, 1993). 이 연구에서는, 특히 어머니가 흡연을 하는 경우 모든 약물남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가 흡연하는 경우가 매우 적어 특수한 가정환경으로도 생각되며 향후 이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생활에 따른 약물경험률의 관계에서는,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약물의 경험률이 높았는데 음주, 흡연, 환각제의 사용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업성적이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예측해 주는 요인이며(Smith와 Fogg, 1976),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성취압력으로부터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약물을 남용한다(Misra, 1980)고 보고되고 있다. 장상희(1985), 조정

문(1985)도 학업성적과 청소년의 비행간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학문적 성취가 청소년들의 가장 심각한 과제이므로 학업성적이 낮을 때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지기 쉬우며 이러한 것들이 약물남용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시간이 짧을수록 음주와 흡연을 유의하게 많이 경험했으며, 환각제의 경우는 학습시간이 짧은 경우와 오히려 긴 경우가 경험률이 높았다. 방과후 어울리는 친구가 많거나 어울리는 시간이 길수록 약물사용경험률이 높았는데, 각성제와 대마초를 제외한 약물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약물사용 친구가 많을수록, 처벌받은 학교친구가 있는 경우 모든 약물의 경험률이 높았는데, 대마초 외에는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문화체육부, 1993)와 부합되는 것이었다. 청소년기는 가족의 통제력과 영향력이 감퇴되고 사회관계망을 가족 외의 동년배 친구와 어른의 세계로 확장시키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또래집단의 영향은 사회화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된다. 또래집단에 의한 일탈적 사회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론은 차별교제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으로 관습적인 사람들과의 접촉보다 비관습적인 또래집단 문화와의 접촉이 더 강할 때 사회화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약물사용을 학습하게 된다고 한다(장상희, 1992). 그러나 Hirschi(1969)는 비행자는 다른 비행자를 친구로 선택하는 것이므로 일탈적 접촉이 비행의 원인이 아니라 비행이 일탈적 접촉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약물사용 금지와 처벌에 대한 지식과 약물경험률과의 관계에서는, '치료목적외 불법사용시 징역을 산다'라고 답한 경우가 현재도 음주를 하고 있는 율이 낮았고, '약물사용 후 자제심 상실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는다'라고 답한 경우가 흡연경험률이 적었으며, '미성년자는 깡연, 음주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약물사용경험이 적어, 행동의 결과로 기대되는 처벌이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약물남용에 대한 교육시 약물남용으로 인한 처벌 사항도 함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약물에 대한 수용태도와 약물경험률의 관계에서는, '이성친구에게 먹이고 싶은 충동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한 경우와 '약물 값이 싸다면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한 경우, '약물사용보다 취미생활이 낫다'라는 물음에 부정적인 답을 한 경우가 약물의 경험이 많아 약물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질수록 경험률이 높았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문화체육부, 1993)결과와 부합되었다. 약물을 사용하다보면 폐인이 된다는 항목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 각성제, 환각제, 대마초의 사용이 많아, 약물사용으로 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 수준과 약물경험률과의 관계에서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음주, 흡연, 각성제, 환각제의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아져 스트레스가 흡연, 음주와 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서일 등, 1988; 조우성 등, 1993; 배종면 등, 1994)와 일치하였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약물남용을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약물사용 경험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모든 약물경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약물사용 친구가 있는 경우와 이성친구에게 약물을 먹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경우였으며, 2학년인 경우, 부모의 관심도가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미성년자의 깡연·음주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김소야자 등, 1989; 장상희, 1992; 문화체육부, 1993)와 부합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음주, 흡연, 환각제 경험유무에서는 인문계보다는 실업계 주·야간부인 경우가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성제 경험에서는 오히려 실업계 주·야간부보다는 인문계인 경우가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분석에서 고찰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단순분석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던 생활수준, 가족동거여부 등의 가정환

경과 부모의 음주, 흡연태도는 전체 및 집단별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에서 유의한 변수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가정환경이나 부모환경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자신이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청소년의 약물남용에는 부모환경, 학교생활 및 환경, 약물에 대한 수용태도, 약물에 대한 금지 및 처벌에 대한 지식, 스트레스 정도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예방을 위하여는 가정, 학교, 사회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 지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어떤 친구와 사귀는지를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아야 할 것이며 약물남용을 하는 또래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이 요망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대상자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답을 해주었는지가이다. 무기명 자기응답식이며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이므로 이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약물남용 여부에 대한 설문문항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문하고 있으며 여러 요인에 대한 설문문항도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문항을 사용하였으므로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약물복용 수준이 다른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과 비슷하고 연구결과가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며 예측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경험적 타당도(예측적 타당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인문계 2학교와 실업계 2학교를 임의추출하여 모두를 조사하였으므로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4학교가 행정구역이 모두 서로 다르며 새로 편입된 군지역은 제외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연구결과상 기존의 연구결과 또는 예측한 것과 일치하여 그 나름대로 연구결과를 고등학생 집단에 대한 약물남용 정책에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대구시 일부 남자고등학교의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일반적 현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결정요인들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종단적 연구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V. 요약

남자고등학생의 약물남용실태와 그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구시 일부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1, 2학년 5,665명(인문계 2,207명, 실업계 3,458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자의 55.0%가 음주경험이 있었으며 27.2%는 현재도 음주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흡연경험률은 45.8%였으며 27.5%는 현재도 흡연을 하고 있었다. 음주와 흡연경험률은 1학년에 비해 2학년이 높았으며,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험률이 높았다. 각성제는 3.2%가 사용한 경험이 있었는데,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험률이 더 높았다. 환각제 사용 경험률은 1.6%, 대마초 사용 경험률은 0.1%였다.

주거지역이 상가나 공장지역인 경우,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이사횟수가 많을수록, 부모가 모두 생존해 계시지 않는 경우,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경우에 약물경험률이 높았다. 그러나 각성제의 경우는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에 경험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부모의 관심도가 낮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모가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경우 약물경험률이 높았다. 그리고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학습시간이 짧을수록, 어울리는 친구와 약물을 사용하는 친구수가 많을수록 약물경험률이 높았다.

약물사용 금지와 처벌에 대한 지식과 약물경험과의 관계에서는, 약물사용후 자제심상실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 학생의 흡연 및 대마초 경험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미성년자는 깃연과 음주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고 답한 학생의 약물사용 경험률이 낮았다. 약물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학생의 약물사용 경험률이 높았고, 스트레스 수준과 약물경험과의 관계에서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약물사용 경험률이 높았다.

약물사용 경험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2학년의 경우, 인문계보다는 실업계인 경우, 부모의 관심도가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약물사용 친구

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꺾연·음주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이성친구에게 약물을 먹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경우,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가 음주와 흡연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약물경험률도 이와 관련된 변수와 연관이 있었다.

청소년의 약물경험에는 가정환경, 부모환경, 학교생활 및 환경, 약물에 대한 수용태도, 약물사용에 대한 금지 및 처벌에 대한 지식, 스트레스 정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예방을 위하여는 가정, 학교, 사회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 지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경빈. 청소년들의 습관중독성물질 오 남용, 마약류남용 시민공개강좌 주제강연. 대한보건협회 1991

김성이.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92

김소아자, 이만홍, 황미희. 알콜중독환자 가족과 일반가족의 정신증상 발현율과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989;23(6):1073-1081

김소아자.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1991

대구라인. 1995년 11월 15일 제3호. 사회 쪽 15

문화체육부.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연구. 1993

문화체육부.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지도서. 1993

병원신보. 1993년 4월 19일자. 쪽 17

배종면, 안윤옥, 박병주. 대학생 흡연량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예방의학회지 1994;27 (1):1-10

보건신문. 1995년 10월 19일자. 쪽 3.

서일, 이해숙, 손명세, 김일순, 신동천, 최영이. 전국 남자 중 고등학교의 흡연실태. 한국역학회지 1988;10(2):219-229

영남일보. 1995년 4월 11일자. 쪽 15

이경영. 일부 중학생들의 약물사용 실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1993

이길홍, 이재광, 나철, 박두병, 김민수, 민병근. 청소년 비행의 약물상관 변인분석. 한국의과학 1985;17(2):131

이윤지, 이정애. 광주지역남자중 고등학교의 흡연실태와 흡연관련 요인. 예방의학회지 1993;26(3):359-370

장상희. 청소년 흡연해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논총 1985;4(1):99-124

장상희.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한국사회학 1992;26(여름호): 117-143

조선일보. 1995년 2월 16일자.

조연숙. 고등학생의 약물 남용 실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1989.

조우성, 강준하, 정근백, 정종승, 윤승욱. 주정의존 환자군의 스트레스 평가. 가정의학회지 1993;14(3):140-146

조정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비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85.

주왕기, 오수일, 전완주, 김수희, 주진형, 김형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약물남용과 비행경험 실태. 강원대학교 논문집(사회과학연구) 1991;31:144-147

체육부. 청소년 약물남용실태와 예방. 1989

체육청소년부.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1991

Braithwaite J. *The myth of social class and criminality reconsidere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81; 46(1):36-57

Cloward MA, Ohlin LE. *Delinquency and opportunity. Free Press, N.Y., 1964.*

Connell PH. *Addiction in adolescence, some comments about its diagnosis, treatment, and vulnerable group. Community Health* 6, 1979

Frank SH, Zyzanski SJ. *Stress in the clinical setting; The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J Fam Pract* 1988;26:533-539

Hirschi T. *Causes of delinquen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os Angeles, 1969*

Misra RK. *Achievement, anxiety, and addiction. in Dan J. Lettier et al.(eds.), Theories on drug abuse. NIDA Research Monograph 30,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 D.C., 1980, pp. 212-214*

Smith GM, Fogg CP. *Teenage drug use; A search for causes and consequences. in Dan J. Lettier ed., Predicting adolescent drug abuse; A review of issuse, methods and correlates. Rockville, Md ;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1976, pp. 279-282*

Stanton MD. *A family theory of drug abuse; in Dan J. Lettier et al. eds., Theories on drug abuse; Selected contemporary perspectives. Rockville, Md ;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1980, pp. 147-156*

(부 표)

부표 1. 인문계 1학년의 약물경험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¹⁾	음주		흡연		각성제		환각제	
	POR	(95% C.I.)	POR	(95% C.I.)	POR	(95% C.I.)	POR	(95% C.I.)
생활수준	1.15	(0.88-1.50)	1.01	(0.76-1.35)	0.90	(0.47-1.71)	0.51	(0.18-1.43)
가족동거여부	1.04	(0.51-2.09)	0.54	(0.27-0.95)*	0.93	(0.20-4.28)	0.12	(0.03-0.51)*
부모의 관심도	0.80	(0.68-0.94)*	0.79	(0.66-0.94)*	0.91	(0.61-1.35)	0.63	(0.30-1.33)
부의 음주	0.92	(0.72-1.18)	1.11	(0.85-1.45)	1.18	(0.65-2.16)	1.75	(0.59-5.16)
부의 흡연	1.09	(0.89-1.35)	1.03	(0.82-1.30)	1.21	(0.72-2.02)	1.34	(0.53-3.37)
학교성적	0.94	(0.82-1.07)	0.84	(0.73-0.97)*	0.74	(0.53-1.02)	0.98	(0.55-1.76)
약물사용 친구	5.33	(4.04-7.03)**	4.31	(3.19-5.83)**	2.32	(1.15-4.69)*	5.36	(1.11-25.98)*
미성년자 짝연·음주	0.64	(0.49-0.84)**	0.58	(0.43-0.78)**	1.11	(0.58-2.12)	2.81	(0.85-9.28)
이성친구 총동	1.40	(1.02-1.91)*	1.62	(1.18-2.24)**	1.86	(0.92-3.74)	1.48	(0.45-4.87)
스트레스 정도	1.61	(1.30-1.98)**	1.45	(1.15-1.84)**	0.83	(0.92-3.74)	3.86	(1.24-12.00)*
	$\chi^2=262.838$		$\chi^2=211.472$		$\chi^2=20.659$		$\chi^2=38.011$	
	P=0.0000		P=0.0000		P=0.0236		P=0.0000	

부표 2. 인문계 2학년의 약물경험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¹⁾	음주		흡연		각성제		환각제	
	POR	(95% C.I.)	POR	(95% C.I.)	POR	(95% C.I.)	POR	(95% C.I.)
생활수준	1.02	(0.77-1.36)	1.02	(0.77-1.36)	1.39	(0.81-2.38)	0.26	(0.07-0.99)*
가족동거여부	0.93	(0.48-1.77)	1.16	(0.59-2.29)	1.53	(0.35-6.65)	826.7	(0-∞)
부모의 관심도	0.92	(0.78-1.07)	0.82	(0.69-0.96)**	0.87	(0.64-1.18)	2.06	(0.77-5.48)
부의 음주	1.41	(1.10-1.80)**	1.21	(0.94-1.55)	0.91	(0.57-1.47)	0.08	(0.02-0.35)**
부의 흡연	1.13	(0.92-1.39)	1.03	(0.83-1.25)*	0.83	(0.55-1.25)	1.24	(0.48-3.22)
학교성적	0.73	(0.64-0.84)**	0.63	(0.55-0.73)**	0.93	(0.72-1.21)	1.09	(0.54-2.21)
약물사용 친구	3.94	(2.97-5.22)**	3.70	(2.77-4.94)**	2.84	(1.52-5.32)**	1.11	(0.26-4.84)
미성년자 짝연·음주	0.69	(0.53-0.91)**	0.82	(0.62-1.10)	0.84	(0.48-1.47)	0.55	(0.12-2.44)
이성친구 총동	1.32	(0.97-1.80)	1.60	(1.18-2.18)*	1.97	(1.13-3.44)*	2.55	(0.58-11.10)
스트레스 정도	1.26	(1.02-1.56)*	1.14	(0.91-1.41)	1.23	(0.80-1.90)	1.52	(0.48-4.82)
	$\chi^2=199.387$		$\chi^2=190.730$		$\chi^2=30.563$		$\chi^2=24.360$	
	P=0.0000		P=0.0000		P=0.0007		P=0.0067	

* : p<0.05, ** : p<0.01

1) 생활수준 : 못산다(1), 보통이다(2), 잘산다(3); 가족동거여부 : 동거 안 함(0), 동거함(1); 부모의 관심도 : 모른다(1), 반반이다(2), 잘 안다(3); 부의 음주·흡연 : 안 한다(1),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2), 걱정할 정도다(3); 학교성적 : 아주 낮다(1), 낮은 편이다(2), 중간이다(3), 높은 편이다(4), 아주 높다(5); 약물사용 친구 : 없다(0), 있다(1); 미성년자 짝연·음주 급지 : 아니오(0), 예(1); 이성친구에게 먹이고 싶은 충동느낌 : 아니오(0), 예(1); 스트레스 정도 : 2점 미만(1), 2-3점(2), 3점 이상(3)

부표 3. 실업계 1학년 주간 학생의 약물경험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¹⁾	음주		흡연		각성제		환각제	
	POR	(95% C.I.)	POR	(95% C.I.)	POR	(95% C.I.)	POR	(95% C.I.)
생활수준	1.04	(0.83-1.30)	1.06	(0.85-1.33)	0.89	(0.40-2.01)	0.47	(0.21-1.03)
가족동거여부	1.34	(0.82-2.19)	0.97	(0.60-1.58)	0.21	(0.07-0.61)*	1.50	(0.19-11.96)
부모의 관심도	0.96	(0.84-1.10)	0.96	(0.84-1.09)	1.15	(0.70-1.88)	0.94	(0.59-1.52)
부의 음주	0.97	(0.80-1.16)	1.00	(0.83-1.20)	1.32	(0.67-2.58)	1.48	(0.73-3.00)
부의 흡연	1.10	(0.93-1.32)	1.26	(1.05-1.50)*	0.94	(0.50-1.78)	1.76	(0.84-3.68)
학교성적	0.97	(0.87-1.08)	0.98	(0.88-1.09)	1.65	(1.05-2.59)*	1.12	(0.75-1.67)
약물사용 친구	3.57	(2.85-4.47)**	3.82	(3.06-4.78)**	2.80	(0.99-7.88)	1.78	(0.67-4.73)
미성년자 격연·음주	0.79	(0.63-0.98)*	0.75	(0.59-0.95)*	0.47	(0.20-1.13)	0.53	(0.22-1.23)
이성친구 충동	1.66	(1.27-2.18)**	1.47	(1.13-1.93)**	1.29	(0.53-3.10)	1.99	(0.85-4.66)
스트레스 정도	1.80	(1.52-2.14)**	1.46	(1.23-1.73)**	2.25	(1.21-4.16)*	2.81	(1.54-5.13)**
	$\chi^2=228.727$		$\chi^2=209.979$		$\chi^2=33.583$		$\chi^2=38.350$	
	P=0.0000		P=0.0000		P=0.0002		P=0.0000	

부표 4. 실업계 2학년 주간 학생의 약물경험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¹⁾	음주		흡연		각성제		환각제	
	POR	(95% C.I.)	POR	(95% C.I.)	POR	(95% C.I.)	POR	(95% C.I.)
생활수준	0.99	(0.70-1.39)	1.06	(0.77-1.45)	1.30	(0.68-2.48)	1.25	(0.51-3.02)
가족동거여부	1.05	(0.53-2.10)	0.71	(0.36-1.39)	1.34	(0.31-5.80)	0.81	(0.17-3.92)
부모의 관심도	0.81	(0.66-1.99)*	0.77	(0.64-0.91)**	0.80	(0.56-1.13)	0.55	(0.31-0.95)*
부의 음주	1.12	(0.82-1.52)	1.07	(0.84-1.37)	1.03	(0.63-1.69)	0.99	(0.51-1.90)
부의 흡연	0.98	(0.78-1.24)	1.12	(0.90-1.39)*	1.19	(0.75-1.87)	1.30	(0.70-2.41)
학교성적	0.73	(0.62-0.85)**	0.63	(0.54-0.73)**	1.13	(0.85-1.50)	0.56	(0.37-0.87)**
약물사용 친구	3.85	(2.78-5.32)**	3.77	(2.78-5.12)**	1.23	(0.60-2.54)	2.07	(0.58-7.46)
미성년자 격연·음주	0.71	(0.52-0.98)*	0.85	(0.63-1.14)	0.95	(0.51-1.77)	0.48	(0.18-1.26)
이성친구 충동	1.81	(1.17-2.79)*	1.93	(1.31-2.83)*	2.99	(1.58-5.63)**	4.54	(1.81-11.42)**
스트레스 정도	1.46	(1.14-1.86)**	1.16	(0.93-1.45)	1.08	(0.70-1.67)	0.79	(0.43-1.45)
	$\chi^2=148.204$		$\chi^2=187.001$		$\chi^2=15.969$		$\chi^2=38.454$	
	P=0.0000		P=0.0000		P=0.1006		P=0.0000	

* : p<0.05, ** : p<0.01

1) 생활수준 : 못산다(1), 보통이다(2), 잘산다(3); 가족동거여부 : 동거 안 함(0), 동거함(1); 부모의 관심도 : 모른다(1), 반반이다(2), 잘 안다(3); 부의 음주·흡연 : 안 한다(1),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2), 걱정할 정도다(3); 학교성적 : 아주 낮다(1), 낮은 편이다(2), 중간이다(3), 높은 편이다(4), 아주 높다(5); 약물사용 친구 : 없다(0), 있다(1); 미성년자 격연·음주 금지 : 아니오(0), 예(1); 이성친구에게 먹이고 싶은 충동느낌 : 아니오(0), 예(1); 스트레스 정도 : 2점 미만(1), 2~3점(2), 3점 이상(3)

부표 5. 실업계 1학년 야간 학생의 약물경험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¹⁾	음주	흡연	각성제	환각제
	POR (95% C.I.)	POR (95% C.I.)	POR (95% C.I.)	POR (95% C.I.)
생활수준	1.12 (0.77-1.64)	1.31 (0.90-1.90)	5.98 (1.27-28.07) *	4.27 (0.55-33.38)
가족동거여부	0.87 (0.37-2.00)	1.20 (0.52-2.76)	348.8 (0-∞)	28885.6(0-∞)
부모의 관심도	0.97 (0.77-1.23)	1.11 (0.88-1.39)	2.77 (0.71-10.88)	0.22 (0.04-1.22)
부의 음주	1.21 (0.86-1.72)	1.17 (0.83-1.64)	0.79 (0.18-3.40)	0.64 (0.12-3.35)
부의 흡연	1.02 (0.74-1.41)	1.02 (0.74-1.40)	0.84 (0.20-3.50)	1.82 (0.27-12.43)
학교성적	0.98 (0.79-1.20)	0.93 (0.81-1.20)	0.78 (0.32-1.90)	1.16 (0.41-3.27)
약물사용 친구	4.22 (2.76-6.47)**	4.90 (3.19-7.53)**	0.90 (0.16-4.88)	2.86 (0.37-22.34)
미성년자 짝연 · 음주	0.63 (0.41-0.97) *	0.53 (0.33-0.85) *	0.85 (0.17-4.42)	0.00 (0-∞)
이성친구 충동	2.49 (1.36-4.54)**	1.03 (0.57-1.88)	4.91 (0.87-27.83)	4.04 (0.25-65.37)
스트레스 정도	1.15 (0.82-1.60)	0.85 (0.61-1.18)	1.00 (0.27-3.67)	1.10 (0.23-5.32)
	$\chi^2=63.913$	$\chi^2=62.179$	$\chi^2=13.543$	$\chi^2=16.050$
	P=0.0000	P=0.0000	P=0.1949	P=0.0982

부표 6. 실업계 2학년의 야간 학생의 약물경험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¹⁾	음주	흡연	각성제	환각제
	POR (95% C.I.)	POR (95% C.I.)	POR (95% C.I.)	POR (95% C.I.)
생활수준	1.66 (1.11-2.47) *	1.00 (0.68-1.48)	1.29 (0.36-4.63)	0.84 (0.28-2.52)
가족동거여부	1.24 (0.59-2.61)	0.84 (0.39-1.78)	663.02(0-∞)	932.34(0-∞)
부모의 관심도	0.83 (0.66-1.05)	0.81 (0.64-1.02)	0.89 (0.43-1.83)	0.80 (0.40-1.57)
부의 음주	0.86 (0.62-1.19)	1.09 (0.79-1.50)	1.32 (0.42-4.12)	0.75 (0.27-2.04)
부의 흡연	1.04 (0.76-1.42)	1.03 (0.76-1.40)	1.09 (0.38-3.14)	0.89 (0.33-2.40)
학교성적	0.80 (0.66-0.95) *	0.78 (0.65-0.93) *	0.70 (0.39-1.26)	0.53 (0.29-0.97) *
약물사용 친구	3.74 (2.50-5.61)**	3.73 (2.52-5.52)**	0.86 (0.24-3.06)	4.20 (0.88-20.06)
미성년자 짝연 · 음주	0.61 (0.41-0.91) *	0.65 (0.44-0.97) *	1.46 (0.41-5.22)	0.59 (0.18-1.88)
이성친구 충동	1.56 (0.87-2.78)	2.46 (1.34-4.52)**	2.06 (0.52-8.08)	0.83 (0.21-3.22)
스트레스 정도	1.25 (0.91-1.72)	1.36 (0.99-1.86)	1.19 (0.48-2.95)	2.09 (0.92-4.74)
	$\chi^2=68.887$	$\chi^2=84.369$	$\chi^2=6.186$	$\chi^2=19.089$
	P=0.0000	P=0.0000	P=0.7994	P=0.0392

* : p<0.05, ** : p<0.01

1) 생활수준 : 못산다(1), 보통이다(2), 잘산다(3); 가족동거여부 : 동거 안 함(0), 동거함(1); 부모의 관심도 : 모른다(1), 반반이다(2), 잘 안다(3); 부의 음주 · 흡연 : 안 한다(1),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2), 걱정할 정도다(3); 학교성적 : 아주 낮다(1), 낮은 편이다(2), 중간이다(3), 높은 편이다(4), 아주 높다(5); 약물사용 친구 : 없다(0), 있다(1); 미성년자 짝연 · 음주 금지 : 아니오(0), 예(1); 이성친구에게 먹이고 싶은 충동느낌 : 아니오(0), 예(1); 스트레스 정도 : 2점 미만(1), 2-3점(2), 3점 이상(3)